

“적수가 없네”... 새해도 ‘안세영 천하’

2026 첫 대회 말린 오픈 3연패 세계 2위 중 왕즈이 2대0 완파 최근 상대 전적 9연승 압도적 2세트 13:19→24:22 드라마

배드민턴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삼성생명)이 새해 첫 대회부터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세계 최강’의 위용을 과시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결승에서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2-0(21-15 24-22)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안세영은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이 대회 3연패 금자탑을 쌓았다.

특히 지난해 8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했던 왕즈이를 다시 한번 제압하며 통산 상대 전적에서도 17승 4패의 압도적인 우위를 이어갔다.

경기 초반 안세영은 잠시 흔들렸다. 1게임 초반 5점을 연속으로 내주며 1-6으로 뒤처졌으나 끈질기게 따라붙어 10-11로 인터벌을 맞았다.

전열을 가다듬은 안세영은 인터벌 이후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했다. 7점을 연속으

로 몰아치며 단숨에 전세를 뒤집고, 첫 게임을 따냈다.

2게임에서는 절치부심한 왕즈이가 거세게 반격했다.

안세영은 8-7로 앞서던 상황에서 내리 7점을 실점하며 주도권을 내줬다.

그러나 쉽게 물러설 안세영이 아니었다. 안세영은 13-19로 패색이 짙던 상황에서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며 순식간에 6점을 몰아쳐 19-19 동점을 만들었다.

승부는 듀스로 이어졌다. 20-20에서 시작해 세 차례나 동점이 반복되는 혈투 끝에 23-22로 역전에 성공한 안세영은 특유의 날카로운 대각 크로스 샷으로 상대 코트를 찌르며 우승을 확정 지었다.

안세영은 지난해 최대 최다승 타이 기록(11승), 단식 선수 역대 최고 승률(94.8%), 그리고 역대 최고 누적 상금액(100만3175달러)을 달성하며 배드민턴의 새 역사를 썼다.

2026년 첫 대회를 우승으로 장식하며 기분 좋게 출발한 안세영은 잠시 숨을 고른 뒤 13일 개막하는 인도 오픈에 출격해 다시 정상을 노린다.

글·사진·연습뉴스

안세영 선수가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결승에서 중국의 왕즈이를 상대로 승리한 후 기뻐하고 있다.



英 FA 챔프 잡은 6부리그

매클스필드, 팰리스에 2-1... 사상 최대 이변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챔피언 크리스탈 팰리스가 6부 리그 팀에 쳐 탈락하며 대이변의 희생양이 됐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10일(한국시간) 영국 매클스필드의 리징닷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2026 FA컵 3라운드(64강전) 원정 경기에서 매클스필드 FC에 1-2로 패했다.

매클스필드는 주장 폴 도슨이 전반 43분 프리킥 상황에서 헤더 선제골을 넣고, 후반 15분 아이작 버클라라케츠가 추가 골을 터뜨려 2-0으로 앞선 뒤 후반 45분 팰리스 에레미 피노에게 프리킥으로 한 골을 내줬으나 리드를 지켜내 대어를 낚았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팀 팰리스는 지난해 5월 2024-2025시즌 FA컵 결승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1-0으로 꺾고 1905년 창단 이후 120년 만에 처음으로 대회 우승을 차지한 ‘디펜딩 챔피언’이다.

매클스필드는 잉글랜드 축구 시스템의 6부 리그 격인 내셔널리그 노스 중 현재 14위다.

BBC 등 영국 언론은 현재 팰리스가 프리미어리그 13위인 점을 들어 리그 순위로만 보면 5개 리그 아래 117계단이나 차이가 나는 두 팀의 이번 결과는 FA컵 역사상 최대 이변이라고 전했다.

특히 프로가 아닌 ‘논리그’팀이 FA컵에서 지난 시즌 우승팀을 꺾은 건 1908-1909시즌 이후 117년 만이다. 공교롭게도 당시 대회 1라운드에서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올버햄프턴 원더러스를 누른 논리그 팀이 팰리스였다.

축구 통계 전문 업체에 따르면 최근 100년 동안 FA컵에서 논리그 팀이 최상위리그 팀에 승리한 것조차 이번이 9번째에 불과할 정도로 드문 일이다.

매클스필드는 1874년 창단한 전신 매클스필드 타운이 재창단으로 2020년 해체된 후 지역 사업가 로버트 스메스허스트가 구단을 인수하고 전 웨일스 국가대표 미드필더 로비 새비지 등이 이사진에 합류하면서 재창단된 팀이다.

이후 9부 리그에서 시작해 4시즌 만에 3번의 승격을 거듭하며 6부 리그까지 올라섰다. 현재 리그 하위권에 있으나 플레이오프 진출권과는 승점 차가 크지 않다.

존 루니 감독은 영국 국가대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에서 활약한 공격수 웨인 루니의 친동생이다.

지금은 BBC에서 해설을 맡고 있는 웨인 루니는 매클스필드의 이변을 중계하면서 “동생이 이런 성과를 이루는 걸 보니 매우 감격스럽다”면서 “그는 감독을 맡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정말 자랑스럽다”고 뿌듯해했다.



매클스필드 선수들이 골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습뉴스

양현준, 감독 교체 첫 경기 결승포... 눈도장 ‘꼭’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에서 뛰는 양현준(사진)이 감독 교체 후 첫 경기에서도 골 맛을 보면서 활약을 이어갔다.

양현준은 11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셀틱 파크에서 열린 2025-2026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 22라운드 던디 유나이티드와 홈 경기에 선발 출전해 선제 결승 골을 터뜨리고 셀틱의 4-0 완승을 이끌었다.

잔뜩 웅크린 던디를 상대로 셀틱이 공세를 이어가던 전반 27분 리암 스키퍼스가 내준 공을 양현준이 페널티아크 부근에서 이어받아 오른쪽으로 강하게 깔아 차 골망을 흔들었다.

양현준의 올 시즌 정규리그 2경기 연속 골 및 3호 골(1도움)이다.

던디전서 오른쪽 윙어로 선발 출전... 전반 27분 선제골 폭발



스코틀랜드 리그컵과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1골씩을 포함하면 시즌 공식전 5호 골이다.

양현준은 특히 정규리그 3골을 최근 4경기에서 몰아넣으며 물오른 경기력을 뽐냈다.

이날 던디전은 셀틱이 감독을 교체한 뒤 치른 첫 경기였다.

셀틱은 지난해 12월 윌프레드 남시 감독 부임 이후 8경기에서 2승 6패로 부진을 이어가자 6일 남시 감독을 경질하고 마틴 오닐 감독에게 시즌 종료 때까지 지휘봉을

맡기로 했다.

주 포지션이 측면 공격수인 양현준은 남시 감독이 스리백을 바탕으로 한 3-4-3 포메이션을 가동하면서 윙백으로 포지션이 바뀌었다. 양현준은 보직이 변경된 뒤 오히려 공격 본능이 살아나 리그에서도 골 맛을 보기 시작했다.

오닐 감독 체제로 재제비하면서 셀틱은 다시 포백으로 돌아가 이날 4-3-3 대형으로 던디에 맞섰다.

양현준은 제자리인 오른쪽 윙어로 돌아가서도 변함없는 경기력을 보여줬다. 양현준은 팀이 4-0으로 넉넉하게 앞서 있던 후반 27분 루크 맥코완과 교체됐다.

셀틱은 양현준의 선제골 이후 전반 32분 아르네 영겔스의 추가 골로 2-0으로 전반을 마쳤다.

이후 후반 18분 베니아민 누그렌, 후반 24분 마에다 다이젠이 골 잔치에 가세해 던디를 완파했다.

2연패에서 벗어난 2위 셀틱(승점 41·13승 2무 6패)은 한 경기를 덜 치른 선두 하트 오브 미들로시언(승점 44·13승 5무 2패)에 일단 승점 3차로 따라붙었다.

영국 방송 BBC에 따르면 이날 감독은 경기 후 “선제골을 넣어야 했는데, 양현준이 멋지게 해줘 우리의 경기를 할 수 있었다”고 이날 승리의 원동력을 양현준에게서 찾고는 “전반적으로 우리 팀 경기력이 정말 좋았다”고 덧붙였다.

연예인 위한 교과서를 본 적 있나요?

성과 대중의 사랑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비법 명쾌하게 제시 단순한 ‘스타’ 아닌 시대의 리더·문화창조자로 성장시키는 지침서

‘이상한 알베르제’ 작가 신경애 신간 **연예인** Entertainers

- Chapter 1. 연예인의 정체성
- Chapter 2. 연예인의 인기와 성공
- Chapter 3. 연예인의 인성교육

신경애 문화예술평론가·칼럼니스트

작가는 ‘인기는 순간이지만 인성은 영원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혼자만 잘해서는 오래가기 힘든 연예계에서 원팀 정신이야말로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다양한 사례와 이야기로 설명한다.